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2월 워싱턴으로 떠나는 샘윤 보스톤 시 디렉터가 11월 14일 인터뷰 후 보스톤 시청사에서 포즈를 취했다

샘현 보스톤 떠나 워싱턴으로... 보스톤 마음에 담고 간다

워싱턴 아시안어메리칸재단, 연방정부 관계 디렉터로 새로운 출발
보스톤 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아시안 정치 인프라 구축할 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샘현(Sam Hyun, 33) 보스톤시 연방정부업무담당 디렉터가 12월 워싱턴으로 떠난다. 11월 1일, 샘현은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긴 여정의 이야기와 함께 보스톤 시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샘현은 로버트들리오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한인사회에 처음 얼굴을 내비쳤다. 2017년 시민협회 차세대리더십포지움(YLS)에 연사로 참여하면서부터다. 이후 그는 한인사

회는 물론 보스톤 아시안 사회, 그리고 비컨힐에서 그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그런 그의 정계 커리어 시작은 자원봉사에서 시작했다. 12년 전 상원에 도전했던 엘리자베스 워렌의 출마 소식에 감명을 받아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1년 후 케이 칸 주 하원의원의 인턴을 시작했다. 이튿날 상원의장실의 전화를 받고 올라가 매사추세츠 최장수 하원의장인 로

내년총선 재외유권자 신고 및 등록신청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내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유권자의 신고, 등록신청이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재외유권자 신고 및 등록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지속된다.

총선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 및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 재외 유권자 신고 및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공관방문, 순회 접수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위해서는 미국에 단기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는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영구등록이 되어 있지만 2회 이상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재외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뉴튼에 위치한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실시된다.

▶▶3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세계 청년 컨퍼런스 보스턴에서도 참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황규령 자문위원, 편집부 = 202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에 보스턴 협의회(회장 한문수) 황규령, 김승연 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여 6분임, 8분임 대표로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청년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9개국 37개 협의회에서 민주평통 청년위원 70여명이 참여하였다.

컨퍼런스 개막식은 배문수 밴쿠버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강일한 민주부위원장, 윤영민 청년운영위원장, 그리고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가 축사를 전달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석동현 사무처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 미래: 청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통일 미래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했다.

둘째 날에는 연아 마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상원의원의 특별강연(제목: ‘우리의 특별한 관점과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한인 1.5세로서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인 1.5 및 2세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과 주류사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의 핵심인 분임토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한 모든 청년위원들은 8개의 분임으로 나누어져 ‘청년 자문

위원의 통일(공공외교) 활동 방안’과 ‘통일 미래세대 지원(육성) 방안’을 주제로 각국의 정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후 2일차 마지막 행사로 약 6시간에 걸쳐 토의 내용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컨퍼런스 3일차에는 청년위원들의 참여소감을 공유하며 마무리 지었다.

황규령 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공공외교 및 미래세대 지원 방안 관련 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준 보스턴 협의회 회장단에 감사를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평통 7행시 공모전, 25명에게 수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평통간사,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문수)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 칠행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7행시 공모전은 21기 민주평통의 슬로건인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티브로 삼았고 벌써 5회째 진행되는 보스턴 협의회(회장 한문수)의 특화 사업이다. 참가 대상은 뉴잉글랜드(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메인,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6개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참가자 1명당 1개의 응모작 제출이 가능하다.

보스턴 협의회는 경제와 과학 기술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사회 동포들과의 공감대 형성의 장을 공모전을 통해 마련한다고 전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오후 11시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

제로 창작한 칠행시와 상금수령을 위한 연락처(주소와 영문이름 포함)를 함께 보내면 된다. 보낼 곳은 Puacboston@hotmail.com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00(1명), 우수상 \$50(2명), 평화상(3명) \$40, 자유상 수상자 20명에게는 아마존 기프트 카드 20달러가 심사를 거쳐 총 26명의 응모자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당선자는 12월 22일 보스턴 코리아에 발표된다. 공모전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후원 섭준비위원장 Puacboston@hotmail.com 과 오은희 간사에게 (401-935-9506)할 수 있다.

참가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 한인.

보내실 곳: Puacboston@hotmail.com

당선자 발표: 12/22/2023 보스톤 코리아

응모기간: 12/01/2023 ~ 12/15/2023 오후 11시까지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SEUL SEONRY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e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경기도 태권도재단 미주지부 주관 매사추세츠 태권도 대회 2천여명 참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1경기도 태권도재단 미국지부 (GTAF US, 지사장 오진욱)는 11월 12일 보스톤 남쪽 밀튼에 위치한 밀튼 하이스쿨 체육관에서 주내 36개 도장의 5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 학부모 등을 합치면 주최측 추산 약 2천여명이 이날 대회에 참가했다.

이학재 부지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월터 티밀티 주상원의원, 에드워드 플린 보스톤시의

회 의장, 보스톤아시안어메리칸협회(AAA) 계웨관 회장, 티안키왕사 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품새, 겨루기, 격파, 시범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월터 티밀티 상원의원은 “아주 인상적이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아주 젊고 서로 간의 훈육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런 대규모 대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아주 좋

은 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태권도 수련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경기도 태권도재단 미주지부는 미국내 올바른 태권도 발전과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미주지부 주관 대회, 세미나 등을 주최하고 교육 및 고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대사업으로 한국여행은 물론 도복 및 수련장비를 공급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1선고·신혜 국회의원 재외선거
第22代(國會)議員在外選舉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내년 총선 재외유권자 신고등록 신청 시작

▶▶1면에 이어서

한편 내년 총선 신고 및 등록신청에 앞서 보스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장은 남궁연 위원장이 7회째 연속 위원장을 수행하며 부위원장은 박진영, 그리고 위원은 윤성근, 이현경, 오은희 그리고 간사는 김범준 행정관이 맡는다.

선관위는 이메일을 통해 “보스톤은 미주내에서 언제나 유권자 등록율 또는 투표율 둘 중 하나는 항상 1등을 차지해 왔다.”며 각 단체 및 구성원, 한인들의 적극적 협조로 이뤄진 것이라 평가했다.

남궁연 위원장은 “비록 등록 초기이기는 하지만 극히 신고 및 등록신청이 부진하다”며 “한인들과 유학생 그리고 소중한 재외투표권을 보유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 등록일자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
2. 신고·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공관방문 / 순회접수 / 우편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보스톤시 한시적 저소득층 기본소득 제공 고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는 연방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주민인 약 18%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시정부와 시의회는 27일 시의회 청문회를 개최해 한시적인 저소득층 기본소득 제공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제공에 대한 비용 마련, 누가 혜택 대상인지 등을 구체적인 실행 사항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보스톤 시 캔드라 라라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지 않은 데서 오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라 의원은 빈곤은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암, 애스마 등의 높은 건강위험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시 정부가 보스톤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보스톤시는 빈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따르면 기본소득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건 아이

도우 경제기획 수석은 의원들에게 아직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으며 기본소득은 급박하게 대체해야 할 빈곤 구제책의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민간부분 및 자선사업가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스톤시는 현재 기본소득 임시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주변 도시의 성과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대두됐다. 에드워드 플린 시의장은 기본소득제의 실시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했다.

“보스톤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 사업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도시 상업용 건물의 공실율도 높으며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상업용 세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플린 의장은 보스톤시는 공중 안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보스톤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고 그는 못을 박았다.

그러나 루시 루이지엔 시의원은 현재 확보된 자료를 보면 기본소득이 렌트비 지급, 음식 구입, 그리고 교통 비용 충당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무적이라고 말하고 “때론 어떤 것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가브리엘라 콜레타 의원은 “이 기본소득이 일부 가족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라라 의원의 이번 기본소득 청문회 요청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살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빈곤층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0,000이하를 말한다. 보스톤의 빈곤층은 121,000명이며 대부분은 유색인종이다. 특히 18-24세의 여성이 대부분이다.

케임브리지와 첼시 그리고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볼 때 보장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첼시의 경우 기본소득의 75%는 음식을 사는데 사용됐고, 알래스카의 경우 결코 저소득자들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트타임의 경우 17%나 늘었다.

매사추세츠 주민 크리스마스 선물로 평균 가정당 \$691 사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계절이지만 어른들에게는 춥고 늦은 밤 쇼핑으로 대변되는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이 돌아왔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평균 가정당 약 \$691달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벳오하이오가 미국인 3천명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선물 지출 조사에 따르면 60%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2월 1일 이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32%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매년 평균 250달러에서 500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약 21%는 1천달러에서 2천달러 정도를 선물 비용으로 지출하며 심지어 6%는 2천달러 이상을 지출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 선물 지출 비용

| | |
|-----------------|-----|
| \$0 - \$25 | 0% |
| \$26 - \$50 | 9% |
| \$51 - \$100 | 9% |
| \$101 - \$250 | 13% |
| \$251 - \$500 | 32% |
| \$501 - \$1000 | 11% |
| \$1001 - \$2000 | 21% |
| \$2001+ | 6% |

hsb@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뉴튼과 서머빌 일부 주민들, 수만여불 수도요금 폭탄

원격 수도물 사용 계측 미터기 부실로 문제 발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4년간 잠정 수도요금 예상치를 납부했던 뉴튼과 서머빌 주민들 중 일부는 수만달러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뉴튼시는 최근 지금까지 추정치로 요금을 징수했던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수도물 실제 사용량을 미터기에서 확인한 후 기존의 요금과의 편차를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29일 보도에 새로운 요금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일부 주민은 수만달러에 달하는 요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마크 헤밀리히씨는 팅스기빙 바로 직전 \$15,000에 달하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았다. 납부 마감은 12월 중순이었다. 그의 이웃은 \$65,000의 요금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청원을 제기한 헤밀리히씨는 “시가 정확하게 사용 미터를 읽지 않은 책임을 주민들에게 벌칙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수도요금이 수도관의 균열로 인한 누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확한 측정 때문인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뉴튼시가 이처럼 4년간 일부 주민들의 수요사용측정을 못한 이유는 시가 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격 송신장치를 미터기에 부착하면서다. 그러나 2019년 상

당수의 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뉴튼시 루산 풀러 시장은 그럼에도 미터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9년 기기 오작동 후 뉴튼 주민들은 추정에 근거한 요금을 받게 됐으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수도 사용량을 시에 보고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이 같은 “조정 요금” 을 받게 됐다.

풀러 시장은 약 5-10% 가량의 주민들이 이 같은 조정 요금통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요금을 12개월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11개월 동안 최소한의 요금만 내다 12개월째 나머지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요금을 더 많이 낸 주민들은 이에 대한 크레딧을 돌려 받게 된다.

서머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머빌 시는 현재 구형 수도 요금 측정 미터를 교체하고 있다. 일부 구형 모델은 사용한 요금을 원격으로 전송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면서 “조정 요금” 을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레이더 조, 한국식 냉동 소불고기 출시

미국 힙스 냉동 김밥에 이어 K-불고기 열풍 불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형 식료품체인 트레이더 조가 이번엔 한국식 냉동 소불고기를 출시했다.

미 전역 43개주 540여개 매장을 운영중인 트레이더 조는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냉동김밥, LA갈비, 호떡,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소불고기는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음식 중 하나다. 이번에 출시된 냉동 소불고기는 전자 레인지에 4~5분 조리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한 배, 사과, 파인애플 과일원료를 사용해 정통 불고기 양념 방식으로 제조했으며 스모키한 불향은 불판에서 갖 구운 맛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냉동 소불고기 제품 가격은 \$12.99로 판매되고 있으며 1팩에 3인분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K-푸드 열풍을 만들었던 트레이더 조 냉동김밥에 이어 냉동 소불고기 역시 큰 인기를 모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hsb@bostonkorea.com

| | |
|-------------|-------------|
| DUE DATE | 12/13/2023 |
| BILL # | 76044774 |
| TOTAL DUE | \$15,207.97 |
| AMOUNT PAID | \$ |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주)제이투케이코리아
협력업체

김밥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국제선 청소년 평화축제 성황

국제선 주최 첫 평화축제, 부모자녀 미국 주민들도 참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 혼선교회(NACIM: 국제선)가 처음 개최한 청소년 평화축제로 150여명의 청소년 및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뉴튼에 위치한 성안뜰안다블뤼 보스턴한인성당에서 개최된 이날 평화축제에서는 한국 음식인 밥, 고기, 잡채, 떡볶이, 오뎅국물, 오이 김치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또한 김밥 만들기, 한국 전통 게임, 한글 이름 붓 글씨, 태극기 색칠하기, 한복 체험, 한국 전통 악기 체험, 도자기 체험, 마술쇼 등 다양한 한국 체험 코너가 마련됐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부스에 가서 체험을 한 후 총 6개 도장을 받아 다시 안내 데스크로 와서 쿠폰을 받으면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이를 너무 좋아하며 즐겼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부스는 김밥 만들기와 도자기 코너였다. 국제선 김금련 회장이 진행한 김밥만들기 코너에서는 아이들은 직접 김밥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또 보스톤고교 미술교사인 베키 로벤티시씨가 직접 물레를 들고와 아이들에게 설명하며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했으며 아이들은 신기해 하면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평화축제에 앞서 기념식에서는 데이비드 레이니 박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김금련 회장, 진태원 뉴햄프셔 청소년캠프 대표, 한문수 보스톤평통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수잔 베이글리 코일과 조나스 코일이 비올라를 연주했고 행사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식

이 진행됐다. 국제선은 전체 참가 학생들에게 미니 트로피와 상품을 참가상으로 전달했다.

각 부문 대상에겐 \$200, 최우수상에 \$100, 우수상 \$50, 장려상에겐 \$25의 아마존 기프트카드가 상품으로 수여됐다.

온라인 그림 및 글짓기 대회는 짧은 2주간의 시간이었지만 참여율은 물론 아이들의 글과 그림이 수준도 높았다. 온라인 대회를 준비한 진자경 담당자는 “최소 한달이상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장소 섭외문제로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다” 고 전했다.

온라인 그림대회 심사위원인 임현수 노스이스턴 디자인과 교환교수는 “나이를 뛰어넘는 그림의 밀도와 구성에 감탄했다” 고 말하고 “기교적 표현보다 주제를 나타내는 상상력, 그림에서 보여지는 스토리텔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앞으로 그림이 더 기대가 된다” 고 심사평을 남겼다.

글짓기 심사위원인 최소에 전문 통역 및 번역가는 “아이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문화, 언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평했다. 이번 심사에 참가한 보스톤공립학교 교사는 “번역기를 쓴 글이 일부 보였다. 자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고 평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매년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다” 고 전했다

행사를 총괄한 오애련 원장은 “처음으



로 개최한 행사가 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선 임원분들, 회원 뿐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 주신 30여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 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대상: Thomas Woojin Chae(7)
최우수: 류현우(1)
우수상: James 진서 Hong(6), Olivia

Shin(6)
장려상: 정윤지 (5), Arthur Joonwoo Lee(3), Eva Oh(8)
글짓기 대회 수상자
대상: Sun woo Kim(8)
최우수: Nathan 승민 Burt (11)
우수상: Henie Jo(4), 이한나 (8),
장려상: Soobin Cho(2), Jayla Cho(3), 최정인(6)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샘현 보스턴 떠나 워싱턴으로... 보스턴 마음에 담고 간다

▶▶1면에 이어서

버트 딜리오의원의 보좌관으로 새출발을 한다

샘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날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는 아버지같은 인물이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던 멘토였다.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그는 언제나 나를 존중받도록 배려했고 테이블에 나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신경썼다”고 회상했다. 로버트 딜리오 하원의장은 2017년 한국의 날에 참여해 “나의 보좌관 샘현에게 한국의 예절과 아시안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운다”고 말하며 그날 행사에 샘현의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샘현은 대학원 졸업 후 아시안어메리칸커미션의 회장을 맡았으며 미셸 우 시장 선거에서 아시안어메리칸 운영위원, 그리고 소니아 장의 주지사 경선에서 선거캠프 스태프로 일했다. 선거 후 보스턴 시에 합류해 연방업무디렉터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미셸 우 시장, 투누엔 우스터 시 의원과 함께 보스턴글로벌가 선정된 올해의 보스톤니안에 선정됐고, 2023년에는 보스턴의 홍보업체 콜레트필립스커뮤니케이션이 최근 선정한 보스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인사 100여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2024년 워싱턴에서 그는 아시안어메리칸재단(The Asian American Foundation, 이하 TAAF) 연방정부관련업무 디렉터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TAAF는 2021년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로서 아시안 증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인프라를 만든다는 목표로 창설됐다. 아시안 단체로서는 사상 최대인 총 2천5백만달러 규모의 펀드로 시작했으며 이후의 창시자 제리 양, 한인 배우 대니얼 대 김 등이 창설 멤버다.

그는 TAAF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로컬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과 요구가 좀더 잘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키우는 일을 맡게 된다.

미국내 아시안의 영향력은 극히 미세하다. 일례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한창이었을 때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대인 증오범죄가 빈발해지자 모리 힐리 주지사는 반유대인 증오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공표했다. 연방 의회에서도 유대인 증오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있다. 아시안 커뮤니티 영향력의 미국내 현주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14일 오후 보스턴 시청 인근에 있는 커피전문점 타테(Tatte)에서 샘현을 만났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인터뷰시 영어로만 대답했었지만 이번 인터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로 대화를 나눴다.

▶보스턴을 떠난다 이야기 들었다. 떠나는 이유가 뭐가?

워싱턴 DC에 다른 곳에서 일하기 위해 가게 됐다. 약 한달 후인 12월에 아시안어메리칸과 운데이션(TAAF)의 정부관련업무 디렉터(The director of Government Relation)로 일하게 된다. 보스턴 시에서 하는 일과 비슷하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가?

아직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최소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로컬 정부와 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안 커뮤니티가 좀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 영향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흑인 및 라티노 단체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보스턴시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유사해 보인다. 보스턴 시가 아닌 워싱턴 DC의 TAAF에서 유사한 직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보스턴시에 있으면 제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보스턴 시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아시안어메리칸 커뮤니티이다. 그래서

TAAF에 가면 보스턴 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아시안 어메리칸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스턴도 도울 수 있고 미셸 우 시장을 뒷받침 할 수 있지만 좀더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얼마나 있을 계획인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얼마만큼 걸릴지 기간은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인생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과거 연방 하원 출마도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선출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지?

선출직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살면서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그동안 의회 보좌관, 그리고 선거 캠프 등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시안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만 당선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아시안 정치 인프라를 만들어 다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앤디 김이 상원에 도전하고 하원에는 3명의 코리아어메리칸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은 한국사람이 없고 주 하원도 샘 박, 그레이스리 등 몇사람 소수만 있다. 그래서 일단 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커뮤니티를 생각해서 다 같이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따르는 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TAAF를 향해 떠나는 것이지만 TAAF를 넘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TAAF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TAAF 이후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내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2017년 시민협회 차세대리더십포럼에서 연사로 출연하면서 한인사회에 얼굴을 선보인 샘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과거 시장에 출마했던 샘현, 주 하원에 출마했던 덴고에 이어 보스턴으로서는 한인사회를 대표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을 잃게 된다.

보스턴을 영구히 떠난다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간다. 워싱턴에서도 보스턴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만들고 있다.

보스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한인사회가 기회도 주고 뒷받침도 해줬다. 그런 믿음 준 교회, KACL(시민협회) 등 많은 한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므로 보스턴을 마음에 담고 가는 것이다.

제가 떠나면 분명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그 사람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지 궁금하다.

▶보스턴에서 가장 아쉬웠던 일과 자랑스러웠던 일은?

코리아 타운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이 보스턴 사회에서 충분히 대접을 받고 목소리를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시포트에는 한국 포차 로윈도 생기게 된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보스턴글로벌가 선정된 올해의 보스톤니안에 선정됐던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차도, 가구도 없던 뉴햄프셔 독거 노인, 타운에 수백만달러 기부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단지 많은 것을 원치 않았을 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독거노인이던 제프리 홀트(82)씨는 뉴햄프셔 힌스테일에 있는 모빌홈 단지의 평범한 관리인이었다. 마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듯 변변한 가구도 없는 모빌홈에서 잔디깎는 론모어(Lawn-mower)를 이동수단으로 삼았던 그가 지난 6월 사망했다. 이 검소한 그는 그냥 떠나지 않았다. 타운에 4백만달러에 가까운 거액을 남겨 타운을 놀라게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주로 허드렛일을 했으며 작은 뉴햄프셔 타운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다. 고교생들에게 운전교습을 했지만 그 자신은 차를 소유하지 않았다. 평생 자전거를 탔으나 최근 거동이 불편해 지면서 론모어로 이동수단을 바꿨다. 그의 모빌홈에는 TV도, 컴퓨터도 없었고 침대의 다리는 바닥을 파고들었을 정도다.

홀트씨의 절친이자 전 고용주였던 에드윈 스미스씨는 “그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 단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스미스씨는 전 뉴햄프셔 하원의원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허름한 옷에 검소한 살았던 홀트씨는 백만장자였다. 사망하기 전 남긴 그의 유언장은 간단했다. 그가 모은 전 재산 3백80십만달러를 4천 200명이 거주하는 힌스테일 타운

커뮤니티의 교육, 건강, 레크레이션 그리고 문화 사업에 써달라는 것이었다.

절친 스미스씨에 따르면 사망 전 82세였던 홀트씨는 모델 카와 기차 모형을 수집하길 좋아했다. 차와 기차 모형은 집안과 카우치, 그리고 심지어 창고에까지 널려있었다. 역사책을 수집하길 좋아했으며 가장 좋아했던 분야는 헨리 포드와 2차 대전이었다. 또한 헨델과 모차르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클래식 레코드판 수집가이기도 했다.

홀트씨는 과거 버몬트의 브레틀보로에 있었던 탈곡장의 제품매니저로 일했다. 스미스씨에 따르면 그는 조용한 개울물가에 앉아 재정 및 투자서적을 탐독하곤 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가진 돈을 투자했다. 그가 처음 투자했던 곳의 하나는 스마트폰이 나오전 통신사 뮤추얼 펀드였다.

홀트씨는 최근 스미스에게 자신의 투자가 의외의 성공을 거두었다며 용처를 물었고 스미스는 타운에 기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액을 기부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스미스씨는 “전액을 기부한 것을 알았을 때 놀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81세의 누이동생 앨리슨 홀트로 캘리포니아주

라구나우드에 거주하고 있다. 앨리슨은 오빠가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이동생에 따르면 제프리 홀트씨는 난독증을 가진 학습 장애인이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스마트 했지만 쓰기와 스펠링에만 가면 헤맸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교수였다. 누이동생은 제프리 홀트씨가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가책을 안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그만큼 재산을 불린 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한 방법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남매는 매사추세츠 스포링필드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학에서 영어 및 세계문학을 가르쳤다. 어머니는 케이크 문화를 가치로 흡수했던 예술가였다. 이들 부부는 평화운동가였으며 애머스트 타운으로 이성한 후 타운에서 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문제를 위한 타운 집회에 참여했다.

그녀에 따르면 부모님들은 아채가든을 가졌고 늘 집안 온도를 낮게 유지했다. 주위에서 기부한 옷들로 자녀들을 입혔다. 늘 엄격하고 검소했다. 자녀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행복해 지기위해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았다.

이들 남매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다. 홀트씨는 버



몬트의 말보로 칼리지를 졸업했고 해군에서 복역하고 아버지가 교편을 잡았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누이동생 앨리슨씨는 도서관 사서로 일했으며 그녀 또한 자녀가 없다.

홀트씨는 젊었을 때 잠시 결혼했으나 이혼했다. 모빌홈 단지에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냈으나 2017년 그 여성은 사망했다. 홀트씨는 몇 년 전 뇌졸중을 앓았으며 이후 거동이 불편했다.

타운은 아직 공식 타운 미팅을 열지 않았지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토론했고 있다. 타운에 흐르는 커네티컷 강을 낚시와 하이킹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일 수 있다. 타운의 1816년에 지어진 우체국을 재건축할 수도 있다. 또한 약 연 15만달러에 달하는 이자소득으로 자선기관에 그랜트를 줄 수도 있다.

홀트씨는 누이동생에게 자신 인생의 목표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돈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때론 필요한 게 있으면 누이동생에게 요청했다.

누이동생은 “그가 자신을 위해 조금도 즐기지 않은 것은 슬프다”라고 털어놨다.

홀트씨는 이런 이유로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소박한 것들을 탐닉했으며 다른 소유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그는 늘 자신이 가족들처럼 학문의 길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했다는 것이 그를 치료했던 물리 치료사의 전언이다.

장애는 그의 선택이 아니었으나 사회에 대한 선물은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J.K. HEATING & PLUMB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 5분요가

하루 3분 전신 유산소 + 근력 + 스트레칭 올인원 운동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이자 아이돌 중의 아이돌 BTS.. 그 중에서도 솔로로 왕성하게 활동중인 멤버 정국(Jungkook)의 인기는 제가 사는 캐나다 몬트리올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제 인스타그램 해의 팔로워들이 정국의 신곡 Standing Next To You에 맞춰 운동한 제 짧은 릴스 영상을 보고 풀버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3분 25초의 음악에 맞춰 할 수 있는 올인원 운동과 스트레칭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먼저 제 한국어 유 채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심분요가 챌린지 Day9에서 연습하신 후, 영어 유 Yogasong-hayeon에 최근 업로드한 3분 Song Yoga Workout영상을 찾아보시면 재미있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이번엔 발꿈치를 안쪽으로 무릎과 발가락은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바깥쪽으로 벌려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4단계 다리를 구부렸다 폼다 반복하며 팔도 사진처럼 모았다 벌렸다를 반복해주세요.

5단계 영상을 참고해 런지자세까지 이어진 행합니다.

TIP! 엉덩이를 뒤로 보내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런지와 스쿼트로 왔습니다.

1. Side Lunge / Wide Squat (하체 근력 강화, 허벅지 토닝 효과)

1단계 선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접고 사이드 런지 자세로 하체를 가볍게 웍업해줍니다.

2단계 좌우 바뀌가며 5-7회 반복해주세요



2. Forward Bend : 허벅지 스트레칭, 하체 토닝 효과



1단계 앞의 하체 운동 시퀀스가 끝나면 상체를 다리로 가져가 다리 뒷면을 길게 늘려주세요.

2단계 좌우 바뀌가며 천천히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 합니다.

3단계 최대한 다리를 펴고 진행하되 무릎 보호를 위해 살짝 접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TIP! 가슴이 허벅지에 가까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리의 타이트함을 느끼며 호흡을 일정하게 하며 자세를 유지해도 충분히 허리와 다리에 좋은 스트레칭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3. Cobra Pose : 척추 긴장 완화, 자세 교정

1단계 배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가슴 옆에 두고 코브라 준비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팔꿈치를 갈비뼈쪽으로 당기고 천천히 가슴을 매트에서 떼어 보세요.

3단계 여러 번 반복하며 내 가동범위 안에서 척추를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4단계 충분히 스트레칭 한후 아기가 자세나 다 운동 자세로 올라와 휴식 혹은 리셋해주세요.



TIP!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무리해서 상체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Parish of Boston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 |
|---------------------|------------------|
| 주일 미사 (Sunday) | 평일 미사 |
| 오전 9시 30분 (English) | 화: 오전 10시 30분 |
| 오전 11시 (Korean) | 목: 오후 7시 30분 |
| 오후 4시 30분 (Korean) |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

연락주세요:
 stadparish@gmail.com / 617-550-2711

46 Ash St, Newton MA 0248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메디케어 공개 등록 기간 마감 임박, 문답식 풀이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이번 달 칼럼에 게재하고 COVID-19 백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ACA 마켓플레이스 플랜,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생활보조금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다음 방법으로 NAPCA 노인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한국어) 1-800-582-4259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Senior Assistance Center,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Q1) 매년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 (Medicare Open Enrollment Period) 동안 내 메디케어 플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간 중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존 플랜이 2024년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같은 플랜이라도 비용과 혜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플랜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고 본인의 건강관리상 필요한 사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플랜을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해 1월부터 효력 발생하는 보험 커버 내용, 비용, 의약품 목록 및 기타 변경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또한 본인의 건강 관리상 필요한 사항과 복용하는 약품이 다음 해에도 같은 플랜으로 여전히 만족할 만하게 커버되는지, 비용도 만족스러운지 제반 변경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만약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 종료일인 12월 7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Q2) 내가 올해 최초등록기간 (IEP, initial Enrollment Period)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했지만 내년 에 여러 다른 주로 여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전환할 수 있나요?

현재 플랜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 동안 MEDICARE (1-800-633-4227)에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등록 취소를 메디케어에 통보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의료혜택 상의 코디네이션이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들어있는 의약품, 치과, 또는 안과 보장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하고 의약품 보장이 필요한 경우 처방약 보장 플랜에 따라 가입하십시오. 이 때 하지 않고 나중에 파트 D 보장에 가입하려면 다음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으며 지연가입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자기 지불분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 시기에 메디케어 보완 보험인 메디캡을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하는 것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공식가입기간 (1월 1일 ~ 3월 31일) 에도 가능합니다.

Q3)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에 보험을 변경하면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간단히 12월 7일까지 다른 플랜을 선택하면 새로운 플랜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공식가입기간 (MAOEP, 1월 1일 ~ 3월 31일)을 사용하여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거나 오리지널 메



디케어 및 파트 D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지 않는 파트 D 플랜을 따로 갖고 있다면 옵션은 제한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따로 갖고 있는 파트 D 플랜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년 가을 메디케어 공식가입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Q4) 나는 이미 COVID-19 백신을 맞았고 마지막 예방 접종은 2023년 1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COVID-19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독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2023년 9월 11일에 FDA가 새로 개발된 COVID-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백신은 2023년 9월

말부터 접종 개시되었고 현재 만연해 있는 COVID-19 변종에 대해 보다는 예방을 해줍니다. 2023년 9월 이전에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았다면 이 새로운 백신을 접종 받기 바랍니다. COVID-19 백신 및 기타 백신, 독감 백신을 한꺼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접종 받든 다른 백신과 함께 접종 받든 접종 후의 부작용은 동일합니다.

NAPCA (전미 아태 노인 센터)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및 태평양 양제도 거주민의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크루그먼 "깔끔한 물가 상승 둔화, 실제로 진행중"

"美경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다" 다이먼 JP모건 CEO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투자자들은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경기 침체(리세션)나 실업률의 급증 없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은 월가에서는 '꿈의 시나리오'로 통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시장 내 우울한 심리에도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로 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지적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율 3.2% 상승했는데, 지난해 여름 9.1%를 찍었던 것에서 많이 내려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달 실업률은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3.9%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은 회복력을 보인다.

지난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도 5.2% 꺾임 성장했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급여는 4.1% 올라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다.

투자자들은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키우면서 내년이 주식시장 수익률에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가 진정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중반 긴축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호재로 통한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가운데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와 RBC캐피탈마켓, 도이체뱅크 등이 내년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시각이 주된 수수께끼이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경제가 매우 양호하다는 증거를 덜 중요하게 다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관론자들이 1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 경제가 덜 활발해 보인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해 임금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등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후 경제지표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월가에는 경제가 침체의 벼랑 끝에 놓여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최고경영자(CEO)는 인플레이션은 더 오를 수 있고 침체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29일 NYT 세미나 토크 서밋에 참석해 "세상에는 위험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다. 준비하라"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가 친환경 경제에 재정을 투입하고 재무장에 나서며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꼽았다.

앞서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행진을 계속해 기준금리가 7%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nfour@yna.co.kr

2년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 "침체 우려 반영하기 시작"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 최근 미 국채 시장이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기자 칼럼을 통해 지난달 미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경제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상태의 이른바 '골디락스'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최근 낙관론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24일 4.951% 수준에서 이날 4.648%로 빠르게 내려왔고 시장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돈을 거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침체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연율)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1.5%(연율)에 그쳤다면,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문제는 둔화 폭이라고 봤다.

연휴 시즌 소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시장에서는 향후 몇 주간 금리가 급락할 경우 이러한 소비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빌 애크먼 퍼시픽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좋은사람들 www.jun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원사무실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정부, 다음달 1일께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中 국영기업의 부품·핵심광물 + α' 전망...한국 기업 영향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EOC 규정에는 우선 중국의 국영 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나아가 재무부는 중국 사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가진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한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도 논쟁거리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

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IRA는 법에서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게 돼 있다.

다만 현재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에서는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러문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FEOC지침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전기차 탄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도 FEOC로 규정할 범위를 놓고 계속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할 경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면,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이 극히 적어지면서 친환경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따라 중국 국영 기업 등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을 배제하는 것

에 더해 어느 정도나 추가로 FEOC에 포함할지가 업계의 관심이다.

FEOC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 및 지분 구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일부 기업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WSJ은 보도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상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및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배터리 부품에 먼저 적용된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배터리 부품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배터리 부품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배터리 부품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생산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FEOC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작년 백내장수술 가장 많이 받았다...가장 비싼 수술은 심장수술

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 발간...전체 수술 진료비 8조원 넘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지난해 주요 수술 가운데 우리 인구 10만명당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과 제왕절개 수술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34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는 3천 906건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다빈도 수술 건수는 백내장 수술(1천390건), 제왕절개 수술(575건), 일반 척추수술(385건) 순이었다.

전체 인구의 34개 주요수술 건수는 206만8천건(1.4% 감소)으로, 백내장(73만6천건)과 일반 척추수술(20만4천건), 치핵수술(15만6천건)이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주요수술 건수는 각 수술의 전체 건수를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로 나눈 뒤 10만을 곱해서 구한 값이다.

수술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은 여성인구, 전립선 수술은 남성인구만 따졌다.

수술 건당 진료비는 5.1% 늘어난 391만원이었다. 심장수술 3천497만원, 줄기세포이식술 3천418만원 등이 가장 비싼 축에 속했다.

건당 입원 일수는 5.4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입원 일수가 긴 수술은 줄기세포 이식술 29.4일, 슬관절치환술 19.4일 순이었다.

주요수술 인원은 60대가 39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

전체 수술건수 중 26.8%인 55만4천건가량의 환자가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술받았다.

의원(78만7천건), 종합병원(46만1천건), 상급종합병원(41만6천건), 병원(40만2천건) 순으로 수술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주요수술의 총진료비는 한 해 전보다 3.6% 늘어난 8조823억원이었다.

공단은 수술 진료비의 증가 이유로 심박조율장치 수술, 슬관절 치환술, 심장수술 등의 진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보는 이날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줄기세포이식술과 복강경수술, 외래 백내장수술, 외래 편도선절제술 현황이 새로 담겼다.

soho@yna.co.kr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포인트(p) 높였다.

우리 경제의 반등 폭이 당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1%p 낮아진 수치다.

앞서 한은은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2.3%) 이후 올해 2월(2.4%), 5월(2.3%), 8월(2.2%) 등으로 조금씩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1%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2%보다 낮고 한

국금융연구원(2.1%)과 같다.

이번 전망치 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월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3%로 0.2%p 높인 것과 반대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한은은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소비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4분기 들어 반도체 업황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수 있

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 역시 지난 9일 '2023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DEC. 1st - DEC. 7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VEGAN SOY-MATE: KOREAN SPICY BRAISED TOFU

Never has tofu been soy good! This vegan dish is steeped with flavor and tastes delicious warm or cold. 너무 간단한데 맛있어서 자주 해먹게 되는 비건 두부조림 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 | | | | |
|--|---|---|--|--|
|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29.99 BOX |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 Kabocha 단호박 LB \$0.99 |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
|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 Pomegranate 석류 LB \$2.99 | Ginger 생강 LB \$2.99 |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3.99 FOR |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NEW CRO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 |
|--|---|
|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LB \$12.99 |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3.99 |
|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6.99 |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49 |
| 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FAMILY PACK/LB \$5.99 |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7.99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 |
|--|---|
| TONGTONGBAY Frozen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LB \$4.99 |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반칸 홍합 1.5 LB/PKG \$8.99 |
| Louisiana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WILD CAUGHT 9-12'S/LB \$6.99 | Frozen Female Capelin 시사모 LB \$2.99 |
| Frozen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5.99 |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5.99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

SMART CARD MEMBER ONLY

| | |
|---|---|
| KYONG GI ME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33.99 | NONGSHIM Neoguri Spicy Seafood Ramyun 농심 너구리 4.2 OZ X 16 EA/BOX \$14.99 |
| 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48 OZ X 16 EA/BOX \$16.99 | HAIIO Ginger Tea with Honey 해오름 생강차 2.2 LB \$5.99 |

| | | | | |
|---|---|--|--|--|
|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2.99 |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3.99 |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EA/BOX \$8.99 | OTTOGI Snack Ramen Noodle Soup Cup 스낵면 소컵 2.18 OZ X 6 EA/BOX \$7.99 | HYOSUNG Roasted Seaweed 효성 도시락용 고소한 옥동자김 0.16 OZ X 12 EA/PKG \$3.99 |
| HAIIO Premium Roasted Laver 해오름 구운 스키김 10 SHEETS 0.98 OZ FOR 2\$3 | HAIOREUM Dumpling Wrapper 해오름 만두피 14 OZ FOR 2\$5 | HAITAI Spicy Seafood & Fish Roe/Pollack Soup 해태 해물알탕/동태탕 19.40-21.16 OZ \$4.99 | Samjin Food Signature Selection Ammok (Fish Cake) Soup 삼진어묵 정성가득 모듬어묵 2.23 LB \$7.99 | SAJO Daerim Sang Knife-cut Noodles 사조대림 생칼국수 1.76 LB \$2.99 |
| GOMPYO Korean Pancake/Frying Mix 고펜 튀김/부침가루 2.2 LB \$2.99 | CROWN Corn Chip Snack 크라운 콘칩 FAMILY SIZE 8.75 OZ \$3.99 | ARTBOX Whale Silicone Night Light 아트박스 고래 실리콘 무드등 -\$25.99 \$16.99 EA | KüHAUS Personal Bulb Humidifier 쿠하우스 전구형 개인 가습기 300 mL/WHITE -\$13.99 \$9.99 EA | KOMAX One Handle Gray Kimchi Container 코맥스 뚜껑이 더 튼튼해진 원핸들 김치통 (그레이) 5.2L -\$10.99 8.3L -\$12.99 \$7.49 EA \$8.49 EA |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들여 다듬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 | | | | | |
|--|---|---|---|--|---|
|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bsong@bostonpremierrealty.com |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bostonpremierrealty.com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 | | | | | |
|---|--|--|---|--|---|
|  다예나 김 617.271.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  율기 김 978.694.2043 yulgi@bostonpremierrealty.com |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  디디 주 617.780.7839 didi@bostonpremierrealty.com |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  이은주 401.935.3397 eunjung1@gmail.com |
|  세라 김 617.358.6787 seorakim@bostonpremierrealty.com |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  현수 김 617.508.6973 hyeonkim@gmail.com |  마샤 송 213.503.0397 masha@bostonpremierrealty.com |  미키 김 413.607.1402 mikikim@gmail.com |  선호 김 617.815.326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
|  희민 김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  이은순 781.899.3412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  현숙 781.89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  진영 김 617.515.1162 j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  이은경 617.645.6728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  희민 김 604.841.5102 heonkim@bostonpremierrealty.com |
|  Tammy Woolfolk 917.28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  Nancy Wang 617.230.9652 nancywang1987@gmail.com |  Shirley Zhao 86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  Vivian Yu 617.936.2715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  Xian Dole 413.622.8979 xiang777@gmail.com |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
|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  Michael Somma 978.873.0075 msumma@bostonpremierrealty.com |  Linda Tu 867.210.885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
|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bostonpremierrealty.com |  이성진 857.280.6434 isj@bostonpremierrealty.com |  Nimi Bolanger 413.257.1686 nbolanger@gmail.com |  |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결선 없이 사우디아라야드 선정

리아드 119표, 부산 29표, 로마 17표...한총리 "송구, 무거운 책임감" 막판 총력전에도 사우디 '오일머니 파워'에 고배...저개발국 몰표간듯

(파라=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1 우리나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끌어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심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부산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사우디보다 엑스포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당초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추격했다는 자체 판단을 해왔다. 투표일인 이날까지도 결선에 진출해 이탈리아 지지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대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부산엑스포 유치 위원회를 이끌어온 인사들과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



믿을 수 없어 아쉬운 결과 받아든 대표단.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대사까지 총 5명이 나서 부산의 비전과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선발 주자인 사우디의 벽은 높았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적은데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인권 탄압 등 사우디에 부정적인 국제 사회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유치위원회 자문 역할을 한 김이

태 부산대 교수는 "사우디는 왕권 강화를 위해 국민 충성·지지를 확보하는 일종으로 엑스포 등 대형 이벤트를 추진했다"며 "전문학적인 개발 차관과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난이 심화한 저개발 국가들이 사우디에 몰표를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지지해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치전 과정에서 쌓은 외교 네트워크 국가 자산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투표 결과는 아쉽지만, 부산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표 결과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과거에도 주요 국제 대회와 행사는 여러 차례 제도권 끝에 성사된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도 과정 자체가 외교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했다.

shiny@yna.co.kr

尹 "부산 시민과 국민 실망시켜 죄송...전부 제 부족"

(서울=연합뉴스) 정이란 이동환 객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치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

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 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묵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멀리서 보면 '대한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을 해양, 국제 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

로 연결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아드 개최

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ran@yna.co.kr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골프와 인생 13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16번홀 : 버디가 보기된다.

골프라는 운동을 접해 본 사람이라면 라운딩 하면서 “버디가 보기된다” 는 이 말을 안 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욕심 부리다 본전도 못찾는다는 골프의 격언과도 같은 말인 것이다.

15번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서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자칭 그림같은 폼으로 동반자들에게 뷰티풀! 오잘공!(오늘 제일 잘 맞은 공)이라는 환호를 받으며 나의 티샷을 멋지게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시킨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맞은 공이다. 한껏 어깨에 힘을 주고 세컨샷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두번째 샷, 보통 나와같은 주말 골퍼들에게는 티샷이 잘 맞으면 세컨샷은 심중 팔구 뒷땅 아니면 어이 없이 비껴맞는 실수를 범하기 일수다. 하지만 이게 웬일! 세컨샷도 그림같이 핀을 향해 날라간다. 누가 나의 이전 상황을 못 보고 이번 홀만 지켜봤다면 분명 와! 선수 아니세요? 싱글골퍼 맞죠?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샷이었다. 핀 1.5미터에 갓다 붙인 절묘한 세컨샷이다. 누가 뭐래도 완벽한 버디찬스.

핀 1.5미터 내리막 퍼팅, 더군다나 라이도 좋다. 라이 걱정없이 홀컵만 보고 일직선으로 치면 된다. 동반자들의 볼은 그린 주변 여가지에 흩어져 있는 상황. 이 퍼팅만 성공하면 지금까지 구멍난 내 주머니에서 술술 빠져나갔던 귀하디 귀하디 나의 머니를 일순간에 회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와중에 친구 한놈이 내게 다가와 넌지시 속인다. “버디가 보기되니 조심해라” 또 한놈은 내게 오더니 아직 치



지도 않은 나에게 “나이스버디! 버디 하려면 무조건 홀컵을 지나가게 치는것 알지?” 이것들이 속으로 버디 안되게 고사를 지내는구나. 하지만 걱정마라 이번엔 무슨일이 있어도 버디한다. 호기롭게 맘을 가다듬고 잔뜩 긴장하여 퍼팅을 시도한다. 공이 굴러간다. 아뿔사! 홀컵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간다. 내리막이라 쉬지않고 굴러간다. 1미터, 2미터, 3미터 계속 굴러간다. 아이고... 파도 어려운 위치까지 가고서야 볼이 멈춘다. 정말이지 파도 어렵다. 하지만 무슨일이 있어도 파로 막아야

본전을 한다는 일념으로 퍼팅을 해 본다. 잔뜩 긴장한 탓인지 소심한 탓인지 이번에는 힘 없이 홀컵 바로 앞에서 멈추고 만다. 보기가. 말 그대로 버디가 보기가 되는 순간이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홀컵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칠걸 그러면 파라도 했을텐데... 지금 와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다.

인생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과하게 욕심 부리다 본전도 못찾는 경우가 참 많다. 주식을 하며 이정도 수익이면 스톱하고 판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조


금더, 조금더 하는 사이 내 주식은 어느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있다. 와이프에게 적정 수준의 요구를 하다 와이프 기분이 좋은것 같아 무리하게 더 많은것을 요구하다보면 내게 돌아오는것이 아무것도 없을때가 많다. 나 몰래 불어난 뱃살을 뺀다고 1마일만 달려보자고 나갔다가 조금더, 조금더 이왕 뛰는거 3마일 채우자했다가 한일주일의 누워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인생이고 골프고 욕심부리지 말자. 과욕은 금물이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YOU'RE INVITED
TO

2023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한인회

송년의밤

Holiday Party

DECEMBER

SATURDAY

16

AT 7PM

BOSTON MARRIOTT BURLINGTON

1 BURLINGTON MALL ROAD, BURLINGTON MA 01803

RESERVATIONS OR TICKET INFORMATION CALL:

예약 티켓문의 978 - 994 - 0306

Join us for a night filled of raffles, dancing and fun for all!

고국방문 항공권, 냉장고, 대형 스마트 TV 등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65) 한국 경제신문의 투자 박람회

한국 한 경제 신문사에서 재테크 고수 60여명 총출동하는 투자 박람회를 연다. 미국·중국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 금융 투자 환경에서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고 한다.

재테크 전문가 5인의 조언을 인용하면 "매력적 자산은 우량 회사채", "인플레이 방어 위해 금 답아들 필요", "미국 빅테크 주식 비중 늘릴 시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저평가", "마음편한 포트폴리오는 은행예금"이다.

신문에서 언급하는 고급 투자 조언 대부분은 현시점에 의한 투자 포트폴리오이다.

"상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의 만년 저평가(디스카운트) 약재를 해소할 수 있고 미국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저평가된 국내 주식에 투자, 미국 연준은 항상 따라가는 통화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경제 침체

에 대비해 채권 비중을 서서히 높여갈 필요, 주가 폭락에 대비해 미리 현금을 쌓아 놓으면서 일부는 금과 같은 원자재를 담으라는 조언", 등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현시점이나 단기간을 대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투자자 아이들 학자금을 위한 투자인지, 몇십년 후 은퇴자금인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인지, 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 상황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을 높이라는 조언이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고 한다. 이런 조언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면 고금리에서 저금리도 이어지고 이것이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 투자의 기본은

자산을 보존 혹은 보호(Preservation)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조언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59.9% 규모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단 1.4%에 불과하다. 규모가 2%도 되지 않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뭍뭍' 하는 거와 비슷하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투자 박람회에 참가한 증권사는 신문사에 참가비를 낼 것이다. 그리고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돈을 벌지 주식시장 직접 투자로 돈을 버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투자 박람회에서 제대로 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어렵다는 뜻이다.

신문 제목에 '버핏처럼 채권 40% 담고, 주식으로 기회를 노려라' 이다. 주식도 대부분 개별적 기업 투자이다. 일반 투자자나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투자이다.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의 유언은 '남기는 유산 90%를 Vanguard S&P 500 Index에 남은 10%는 Total Bond Index 투자' 한다고 언급했다.

S&P 500 Index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종목이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이 12.5%이다. 이것은 투자한 자금이 거의 3배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 투자 전문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S&P 500 Index와 같은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는 투자하기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편안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은 세종은 기뻐 미친듯 달려나갔다(원문에 '전군희광옥주殿君喜狂欲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의 환대를 받으며 입궁한 미실의 기쁨도 잠시, 미실은 세종의 첩이 되고 싶지 않아 색공色供에 응하지 않았다(얼마전 지소는 미실을 출궁시키고 난 후, 진종의 딸인 용명으로 하여금 세종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다. 물론 세종은 용명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직 미실만 그리워하였다). 그러자 세종은 어머니에게 청하여 용명을 출궁시키고 미실을 부인으로 삼았다.

바로 이 무렵 사다함은 대가야의 마지막 왕도설지를 포로로 잡아 전승고를 울리며 개선하였다. 그러나 미실은 이미 궁궐에 들어가 전군부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겪은 많은 무용담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모두 들려주려고 꿈에 부풀어 돌아왔건만 미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이에 사다함은 그의 슬픈 마음을 노래로 불렀다. 그 내용이 몹시 구슬퍼 당시 사람들이 암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청조가靑鳥歌' 로 이름 지어져 미실에게 바친 노래는 다음과 같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 구름 위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콩밭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나의 콩밭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다시 날아들어 구름위로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 말지도 같 것을 어찌하여

왔는가
부질없이 눈물짓게 하며 마음 아프고 여위어 죽게 하는가
나는 죽어 무슨 귀신 될까, 나는 죽어 신병神兵 되리
(전주殿主)에게 날아들어 보호하여 호신護神되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전주부처 보호하여
만년 천년 오래 죽지 않게 하리)

한편 사다함을 도와 대가야 정벌에 출전하였던 설성은 전사하고 말았다. 설성은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낭주가 사다함의 아버지 구리지가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자 새로 맞은 남편이었다. 그런데 설성마저 562년 가야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러자 원래 색기가 많았던 금진은 아들 사다함의 친구인 무관랑을 집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무관랑은 사다함 대가야가 어려워 늘 괴로워하며 지냈다. 그러나 사다함은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네가 아니라, 어머니 탓이다. 나와 더불어 사우死友를 결의한 벗인데 어찌 작은 혐의를 문제 삼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 후로 금진은 무관랑을 끼고 살았다. 이에 많은 낭도들은 옳지 않은 관계라며 웅성거렸다.

그러던 중 어느날 밤, 무관랑은 (어떤 연유인지 기록은 없다) 도망을 쳐야만 하는 상황에서 궁궐의 담장, 즉 월성의 담장을 뛰어 넘어 구지溝池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결국 그

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460) 사다함은 가장 친한 벗, 무관랑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 하다가 7일 만에 따라 죽었다. 금진은 사다함을 품에 안고 회한의 눈물을 쏟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없었다.

460) 이들의 가장 친한 벗과 '부적절함' 관계를 맺은 금진, 사우死友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무관랑이 어느날 밤 월성의 담장을 뛰어 넘다가 크게 다쳐서 죽은 사건은 '필사본' 이 위서(假書)가 아니고 진서(眞書)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기록 중의 하나이다. 1984년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월성 주변에 구지(海字)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월성의 해자는 1984년과 1990년 1,2차 월성 유적발굴조사단에 의해 그 존재가 들어났다. 화랑세기의 필사자 박창화(1889~1962)는 1933에서 1942년까지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화랑세기를 필사하였고, 월성의 구지가 발견되기 훨씬 이전인 1962년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가 필사한 화랑세기는 그의 제자 김종진이 보관하다가 그의 아내 김경자가 1989년 발췌본(32쪽)과 1995년 필사본(162쪽)을 공개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NOV. 30TH - DEC. 7TH, 2023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Cambridge, & Quincy stores

DONGWON Tuna & Anchovy Broth Cube
동원 국물의 신

REG. \$13.99

\$9.99

3.53 OZ (0.14 OZ X 25 EA) X 2 PKG



HAIIO Flavored Milk Drink (STRAWBERRY/BANANA/COFFEE)

해오름 우유

REG. \$6.99

\$4.99

new

6.42 FL OZ X 6 EA/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렌트 체크 리스트 Rental Check lists

보스톤은 학교의 도시이다! 렌트가 많은 대왕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방을 렌트하시는 분들이 리스계약에 사인하기 전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1. 위치(Location): 렌트를 한다는 건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학교, 직장 등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구글맵으로 어디에서나 위치가 확인이 된다. 한가지 중요한 건 미국은 골

목 하나만 바뀌어도 지역이름이나 학군이 바뀔 수 있다는 거다. 특히 보스톤 지역구 중 도체스터(Dorchester) 나 락스베리(Roxbury)는 다른 보스톤 지역구와 길 하나 차이다. 길 하나 차이로 동네가 아주 다른 느낌일 수 있다. 이점을 꼭 살펴야 한다.

2. 임대기간: 대부분에 거주 임대 조건은 1년 계약이다. 꼭 1년 이하 계약을 해야 한다면 미리 중개인을 통해서 의논해야 한다. 만약 1

년 조금 넘게 계약이 필요 하다면 이점도 미리 의논해야 한다.

3. 주차장: 차가 있을 경우 주차공간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에 주차공간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에 임대주택은 두 종류가 있다. 개인이 주인인 경우와 개인이 아닌 회사가 주인인 경우가 있다. 전기, 난방, 플러밍, 등 각종 문제가 집에서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 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리 회사가 주인이라도 해도 따로 관리해 주는 회사가 없을 수도 있다.

5. 재 계약을 했을 경우: 누구도 앞날을 알 수는 없다. 앞으로 부동산 마켓이 좋아질지 나 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1년에 계약 기간이 지난 후의 재계약에 확률을 미리 알아 봐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다시 집주인이 되돌아와 아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은 임대를 하는 입장만큼 중요한 것은 임대를 주는 입장이다. 때로는 임대를 주는 렌드로드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한가지 중요한 건 임대 후에도 새 주인이 전에 주인에게

전화를 해 볼 수 있다.

이걸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이라고 하는데 전에 세입자가 렌트비를 잘 냈는지 각종 문제로 번거롭게 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렌트 신청서(Rental Application)에는 전 주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2월 3일 - 12월 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뿌듯하고 기분 좋은

● 운수: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한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 금전: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금전운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 열심히 하는 만큼 얻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 애정: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4, 9일 길일. 3, 5일 주의.

소띠 | 대인관계를 넓히고

● 운수: 이사나 이전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뭔가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전망이 밝은 일이 연결될 수 있으니 대인관계를 넓히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까.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좋은 혼처가 들어올 때입니다. 자손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3, 6일 주의.

범띠 | 아무리 급하더라도

● 운수: 비늘허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충하다가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 금전: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까.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 애정: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냐고 할 말을 제대로 못 하지 마세요.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말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 사랑이 꽃을 피우는

● 운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일이 연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이득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애정이 샘솟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용띠 | 인내심으로 버텨야

● 운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놓친 것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으로 버텨야 합니다. ● 애정: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00, 88, 76, 64, 52, 40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뱀띠 | 돌아가는 상황부터 살펴야

● 운수: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니 자책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 금전: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느냐고 빼져나가는 돈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입 못지않게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 애정: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펴야 하겠습니까.
01, 89, 77, 65, 53, 41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말띠 | 거리를 두고

● 운수: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못 보던 것도 보게 됩니다. ● 금전: 미리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걸보기에 남는 것 같아도 현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밖으로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양띠 | 웃을 일이 많아지니

● 운수: 필요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작에도 쓸모가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 너끈하게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 금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 애정: 웃을 일이 많아지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

원숭이띠 |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 운수: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 애정: 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격한 말을 쏟아내서 상처를 주지 마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

닭띠 |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 운수: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남보다 한발 앞서서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공간에 재물이 쌓여갑니다. ● 애정: 오로지 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9일 길일. 6, 8일 주의.

개띠 | 큰 것을 얻게 되는

● 운수: 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기대감도 커집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욕심을 버리고 소를 희생시키는 마음을 내려보세요. 의외로 큰 것을 얻게 되는 운세이니 크게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 애정: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워지겠습니까.
94, 82, 70, 58, 46, 34년생은 4, 7일 길일. 3, 9일 주의.

돼지띠 |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 운수: 머리만 복잡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일단 잠시 쉬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호시탐탐 내 것을 빼앗아기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 정작 중요한 가족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8일 길일. 4, 6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무방비로 당하는 눈물샘 공격... 영화 '3일의 휴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죽은 뒤 딱 한 명만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 봐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 그중에서도 가족을 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다.

하늘나라에 살던 복자(김해숙 분)도 사흘간 지상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에 망설임 없이 외동딸 진주(신민아)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복자는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던 탓에 딸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다. 복자는 딸을 볼 수는 있지만 딸을 걸거나 만질 수는 없다. 진주는 바로 옆에 엄마를 두고도 그의 존재를 모른다.

육상효 감독이 연출한 '3일의 휴가'는 줄거리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다. 자칫 신과극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설정이지만, 노림수가 뻔히 보여 거부감을 주는 장면은 없다. 관찰자의 시각으로 비교적 담담하게 모녀의 일상과 사연을 보여준다.

죽어서도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엄마,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휴가 가이드(강기영) 등 코믹 요소도 많다. 관객들은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 울다 웃다 하는 자신을 발견할 듯하다.

영화는 딸을 보러 지상에 내려온 복자의 현재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모녀의 과거도 간간히 플래시백 형태로 나온다.

복자가 미국 명문대 교수로 있어야 할 딸을 자기 고향 집에서 조우하며 영화는 본격 시작된다. 진주는 엄마가 남긴 레시피를 이용해 그가 하던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다.

복자는 갖은 고생을 하며 '배운 사람'으로 만들어 놔더니 결국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딸의 모습에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하지만 진주가 엄마가 살던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알게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은 하염없이 커진다.

진주는 엄마에게 썩 좋은 딸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효도 한번, 사랑한다는 말 한번 엄마에게 해주지 못했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죄스러움이 뒤엉켜 진주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

복자는 괜찮다는 한마디만이라도 진주에게 해주고 싶다. 엄마는 다 잊었으니 네 삶을 살라는 당부를 건넬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하겠다고 가이드를 설득한다.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무방비로 눈물샘을 공격당한다. 이들의 사연이 특별해서도, 둘의 관계가 유별나게 절절해서도 아니다. 복자와 진주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쯤 모진 말로 엄마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때가 있다.

나만 기다리고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음을 기약하고 만남을 미루기도 했을 것이다.

이 영화를 냉철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극에 엄마 이야기가 개입되면 별것 아닌 장면에도 가슴이 먹먹해져 객관적 감상은 힘들기 마련이다.

'국민 엄마' 김해숙의 연기는 몽클함을 배가한다. 눈빛만으로도 따뜻하고 마냥 주지만 하는 엄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는 과거 영화 '우리 형' (2004) '해바라기' (2006), '친정엄마' (2010) 등에서도 엄마 역을 맡아 극장가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김해숙은 27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할 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주가 엄마에게 못다 한 말을 꿈에서 하는데, 그 말을 나도 내 어머니에게 못해 드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2월 6일 개봉. 105분. 12세 이상 관람가.

rambo@yna.co.kr

BTS RM · 뷔 · 지민 · 정국 12월 육군 현역 입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 뷔, 지민, 정국 네 멤버가 다음 달 모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만형진을 시작으로 멤버 7인 전원이 병역 의무 이행에 돌입하게 됐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RM과 뷔는 12월 11일, 지민과 정국은 12월 12일 각각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진이, 올해 4월 제이홉이 각각 입대해 서로 다른 사단 산하 신병교육대 교교로 복무 중이다.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네 멤버의 입대 일자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빅히트뮤직은 다만 지난 22일 "RM, 지민, 뷔, 정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려 드린다"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데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오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남은 네 멤버도 모두 입대를 결정하면서 이 같은 목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멤버 정국은 전날 "2023 마마 어워즈에서 영상으로 전한 대상 수상 소감으로 '곧 더 큰 나가 돼 만날 것'이라며 "그때까지 건강하고 매 순간 행복하게 보내시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가끔 한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神,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오면서 겪는 경험에서의 일일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건강이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들이 닥쳐 캄캄하고 암담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아 고민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안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 나를 든든히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독(愼獨)'이 아닐까 싶다.

살면서 쉽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럿이 있을 때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으로 성실하면 밖으로 드러난다' 옛말처럼 늘 같은 마음의 중심과 무게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게다.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참 神을 믿는 신앙인 이길 마음을 모아본다. 그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추스르고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엇이 갑자기 변할 수가 없겠지만, 매일 매일의 자신

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늘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이 되기 쉬운 까닭이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욕(人欲)과 물욕(物欲)에 빠지지 않고 삼간(三閑)이라는 뜻을 지닌 '신독(愼獨)'은 나 자신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묵상으로 안내한다. 여럿이 있을 때는 남을 의식하기에 자기 자신을 자중하기도 하고 다스리기 쉽지만,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숨은 '욕심과 욕정'들은 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돈)은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물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혹여, '물질의 노예'가 될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 더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입정일 것이다. 그것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편리함과 함께 그에 따른 손해(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더욱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외에 무엇을 하는지 살피지 않으면

불안해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무도 급속도로 달려가는 현대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편리한 만큼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의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더욱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바빠진 것이다.

삶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남을 의식해야 하는 그 어수선한 마음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저것 재어보고 이런저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제대로인 나를 살 수 있을까 말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어느 한 무리에 속한 단체라는 곳에는 알게모르게 보이지 않는 나를 속박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명품 치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자유로운 사람인데 알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각각 일 때가 많다.

요즘 가끔 우스게 소리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란 얘기로 웃음을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자신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다.

가끔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차려입어 눈에 띄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 사람 자신에게 맞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으로 멋스러워 보이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이 내가 입는다해도 해서 그 사람의 멋스러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멋이란,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멋'이며 나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맞게 연출하는 것이 바로 '멋스러움'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밖으로 연출된 모습도 이렇듯 각양각색의 모습일진대, 마음 안에 자리한 마음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는 얼마나 갖가지로 쌓였을까 말이다. 이제는 지천명을 올라 오십 중반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마음속의 것들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어지는 것이다. 남의 것을 흉내 내는 그런 '멋'이 아닌 내 안의 것을 갈고 닦아 저절로 차오르는 '참 멋'을 연출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니 연출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그저 흘러넘치는 삶이길 바라는 것이다. 삶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하루를 맞고 보내고 또 한 계절을 맞고 보내며 그렇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양보와 사양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자어 양讓을 떠올렸다. 양보讓步가 있고, 사양辭讓이 있으며, 겸양謙讓도 있다. 모두 초등학교적 도덕교과서에나 실렸을 법한 낱말들이다.

더 젊은 노인이 덜 젊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풍경. 언젠가 읽었던 한국 시 한 구절이다.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일 게다. 종종있는 일이고 목격한 적도 몇 번 있다. 노인을 보면 자리에 앉은 젊은이는 당연한 것처럼 자리를 양보하면서 권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노인의 대답은 정중한 사양이다. 이런건 양보와 사양의 미덕이

라 할만 하다. 한편 젊은이는 좌불안석되는데, 남의 눈길에 따갑기 때문이겠다.

러시아워 적에 자주 겪은 일이다. 사거리에서 직진 운전중일 적이다. 우측길에서 좌측감박이를 켜고 기다리는 차를 발견하곤 한다. 신호등이 없으니, 분명 오래 기다렸을 것이다. 뒤꽂무니에 달고 있는 많은 차들이 이를 증거한다. 나역시 잠시 고민에 빠진다. 차를 멈추고 길을 터줘야 하나?

차를 일단정지 하고 길을 양보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그러나 내뒤통을 쫓는 차들에겐 오히려 미안하다. 착한 일하려다가

내차 뒤꽂무니를 받칠수도 있는 거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할까? 아니면 애써 모른척 해야 할까.

경우가 반대일 적도 있다. 좌회전해야 하는데, 내 좌측에선 어느 차도 길을 양보해주지 않을 때다. 내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누가 듣는다면? 저런 저런, 제사장 같은 이라고.

요즘 부쩍 그런 일이 있다. 우리동네가 그러하다. 몇달전부터 길을 파헤치고, 로타리를 새로 만들며 공사하고 있는 거다. 덕분에 좁고 복잡하며 바쁘던 사거리가 더욱

붐빈다. 출퇴근 시간이면 말할 것도 없다.

막무가내로 머리를 들이미는 차도 종종 본다. 성질급한 보스톤인인들의 운전습관이다. 나역시 보스톤인인 다됐다만, 목격할 적마다 조마조마한건 여전하다.

먼저 가야 하는데, 일부터 차를 세우고 양보하는 경우도 있다. 과한 겸양이 달갑지 않을 적도 있다는 거다. 교통법규도 상식에 따라야 하는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사도행전10:29)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에 피가? 원인 다양한 '혈뇨' 증상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요로감염증, 사구체신염, 전립선비대증, 방광암, 신장의 외상 등등 원인 다양한 혈뇨 증상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기과 김 경종 부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크게 걱정되기 마련이다. 혈뇨는 매우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육안적 혈뇨가 관찰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혈뇨는 소변에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배설되는 것으로 약물, 음식, 과도한 운동의 영향으로 단순히 소변이 붉게 보이는 현상과는 다르다. 현미경으로 소변검사를 해서 적혈구가 고배율에서 3~5배 이상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일반적인 혈뇨의 원인은 요로감염, 요석, 외상, 전립선염, 종양 등이다.

혈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변이 지나가는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혈뇨는 특히 방광이나 콩팥에 생긴 염증으로 흔하

게 생길 수 있다. 모든 연령에서는 요로감염, 사구체질환이 많지만 50대가 넘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 전립선의 문제인 경우로 생각해야 한다.

요로감염증은 요도, 방광, 요관, 콩팥을 포함하는 요로기계 감염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 장내 세균에 감염돼 발생한다.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성에게서는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는데 질과 요도 주위에 있는 병원균이 방광에 감염을 일으켜 발생한다. 방광염은 배뇨시 통증, 빈뇨, 혈뇨 등의 증상이 있다. 신우신염은 방광염 증상과 함께 옆구리 통증 및 발열을 동반한다. 심한 감염의 경우에는 혈뇨를 보이기도 한다.

사구체신염이란 신장에 있는 사구체에 염증이 발생해 손상을 입는 질병이다. 사구체는 신동맥에서 나온 모세혈관들이 뭉친 덩어리로서 우리 몸에서 과도한 체액, 전해질, 요독 등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 사구체신염이 발생하면 과도한 체액과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급성 혹은 만성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혈뇨가 발생하며 소변 색이 붉거나 단백뇨가 동반될 수 있다. 사구체 신염에 의해 반복적인 혈뇨가 있는데 이를 방지할 경우에는 서서히 신장 기능이 감소해 말기신부전이 될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도 혈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전립선비대증이란 전립선이 비대해져 방광 하부의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막아 요로 폐색을 일으켜 소변의 흐름이 감소된 상태로 정의된다. 50대 이상의 남성에서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강하고 갑작스런 요의, 절박뇨 등 방광의 배출 장애가 나타난다. 전립선비대증의 흔한 합병증으로는 요로 감염, 혈뇨, 급성 요폐 등이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신장암이나 방광암과 같은 암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노인에게서 육안적 혈뇨가 있거나 흡연자인 경우에는 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암 초기에는 암의 크기가 작아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신장암이 진행되면 혈뇨가 나오거나 옆구리 통증이 발생한다. 방광암의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육안적 혈뇨다. 혈뇨의 정도는 혈괴(핏덩어리)를 동반한 육안적 혈뇨부터 배뇨의 시작이나 끝에만 피가 비치거나 소변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현미경적 혈뇨까지 다양하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과 김 경종 부장은 “심한 운동 후나 열이 심한 경우, 신장에 가까운 등에 충격이나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혈뇨가 나올 수 있다”며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면 일시적 혈뇨일

수 있으므로 수일 간격으로 2번 이상 재검을 해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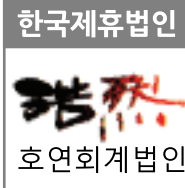
이어 “일반적으로 혈뇨 자체는 빈혈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그러나 염증이나 결석에서부터 사구체신염, 암까지 매우 다양한 질환에서 혈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뇨 진단은 중요하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인 다양한 ‘혈뇨’ 증상”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 NOV. 2023

“글로벌 중추국가” 칠행시 공모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가
"글로벌 중추국가" 칠행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 한인

보내실 곳: Puacboston@hotmail.com

당선자 발표: 12/22/2023 보스턴 코리아
일인당 1개의 창작 칠행시 응모 가능

응모기간: 12/01/2023 ~ 12/15/2023 오후 11시까지

상금: 최우수상 \$100(1명), 우수상 \$50(2명),
평화상 \$40(3명), 자유상 아마존 기프트 카드\$20불(20명)

응모시 상금수령을 위한 연락처(주소 및영문 이름) 반드시 기입
관련정보 미기입시 상금 수령 불가

문의: 후원섭 준비위원장 Puacboston@hotmail.com
오은희 간사 401-935-9506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화로써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